내가 돌이라면 그 돌에서 피가 나오리만큼 진실해야 한다

☞ 21면에서 계속

생각합니까?

밥을 한 끼니 두 끼니 좀 굶으면 어때요, 글쎄. 아니, 새털 같은 날에 쉬지 않고 만날 먹어야 합니까? 쉬지 않고 입고 쉬지 않고 살고 있는데, 구태여 무슨, 헐벗으니까 가난하니까 먹지 못하니까, 내 자식 네 자식 내 부모 네 부모 할 것 없이 온통 거기에 매달려 가지고는 쩔쩔쩔쩔매는 거예요.

언제 적의 자식이고 언제 적의 부모입니까? 우리가 한나절 만났다가 헤어지면 그만이고 한나절 깨어나면 그뿐인 것을. 아침에 잎이 피었다가 저녁 나절에 잎이 지면 낙엽이 져서 땅에 떨어진 걸 여러분이 모두 밟고 다니면서….

그런데 허무하다고 하죠? 허무한 게 아니라 바로 가랑잎이 지고 다시 꽃이 피었다 지면 열매가 맺게 됩니다. 이성계가 꿈을 꾸고 생각했듯이 말입니다. 야, 추운 겨울에 꽃이 피었다가 그냥 사르르르 지고 눈이 오니까 나쁘게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무학 대사가 꿈 해몽을 해 주는데 얼마나 잘해 줬습니까? "야, 꽃이 다 떨어지니 열매가 맺겠구나!" 하고 말입니다.

그러니 생각하기 달렸지 않습니까? 무한정이에요. 마음이라는 거는 무한정이라 생각하는 것도 무한정이죠. 동서남북 벽이 없어요. 지구도 벽이 없어요. 그래서 지수화풍의 근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력과 전력과 광력이 충만해서 서로 당기고 당기는 힘으로 우리가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것도 되고 걸어다니는 것도 된다 이겁니다.

과학적이 아닌 게 어딨습니까? 하나하나 묘한 도리가, 마음이라는 자체가 벌써 벽을 탁 치면 봇장이 울리게 돼 있어요. 돈 좀 꾸러 갔더니 요리 핑계 대고 조리 핑계 대고 말하는 거 보니까 벌써 안 주려고 하는 거, 요거 벌써 알아요. 하하하. 그거 아는 놈이 바로 자성의 원력이란 말입니다.

이 세상에 물질로써 컴퓨터를 만들어 놓고 탐지기를 만들어 놓고 아무리 그랬다 하더라도 자연적이고 자동적인 컴퓨터와 자동적인 탐지기, 망원경, 천체무전통신기가 나한테 본래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아신다면 그 원력이 얼마입니까? 내가 여러분한테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은 나보다 더 잘 아시리라 믿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글쎄 다른 건 다 잘 알고 똑똑하고 학식이 풍부한데, 꼭 고거는 그냥 자기가 번연히 알면서도 속는단 말입니다. 참 이상해요. 그거 속는 거 보면 이상하단 말입니다. 너무도 잘 생기고 이 세상 현시점에서 둘째가라면 섧다고 하는 분들이 꼭 끄트머리에 가서는 그거 때문에 그냥 막히고 막히고 그런단 말입니다.

막히지 마세요. 이성계가 꿈꾼 거를 무학 대사가 딱 뒤집어서 말해 줬듯이 말입니다. 허수아비 모가지가 문전에 대룽대룽 매달려 있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 허허! 만백성들이 쳐다보고 우러러볼 꿈이로구나." 요렇게요. 어떻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생각이 좋으니깐 그냥 생각대로 걸림이 없이 막 간 거예요. 좀 고통은 있었지만 말입니다. 허허허. 그런 고통도 없이 인군을 해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 팔자에 없는 인군을 하게 된 것도 바로 그 점이란 말입니다. 무학 대사의 마음과 활랑 뒤집어 주는 걸 받은 그 근기, 그것이 작품이 된 거죠.

그러니 여러분도 무슨 가난하다 안 된다 울고 짜고 그러지 말고 울 힘이 있으면 생각을 잘하는 힘을 내라 이겁니다. 알고 있는 고놈이 일체 만법을 활용할 수 있는 해결사니까요. 해결사란 놈이 고놈이니까 모든 걸 용광로에다 넣듯이 자동적으로 넣으세요. 자동적인 기계가 스스로에게 스스로 주어져 있으니까 거기다 다 맡겨 놓으란 말입니다. 그까짓 것 뭐, 죽어도 그 솥에 있을 거고 살아도 그 솥에 있을 거 아닙니까, 허허허. 안 그럽니까? 팥죽이 아무리 끓어도 그 솥에 있는 거지 팥물이 어디 갑니까?

그러니 그저 죽어도 그 속에 들어갈 거고, 살아도 그 속에 모두 있을 거니까 거기다 다 놓으시고 한 생각 좋게 해서 딱 쳐들어 놓으면 그냥 자동적으로 돌아가서 생산이 돼서 자동적으로 현실로 나와요. 우리가 헌쇠를 넣으면 새 물건으로 생산이 돼서 나오면서 다시 용도대로 종류별로 이름을 지어 가지고 다시 나오듯이 말이에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50%의 행적을 여러분이 모르기 때문에 그걸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고서야 그 행적이 있는 거지, 여러분이 없는데 무슨 우주가 있고 상대가 있겠습니까? 부처가 어딨습니까? 나라는 부처가 있기 때문에 부처가 있는 겁니다. 나 빼놓곤 아무것도 없어요.

허공에다 왜 법입니까? 그리고 이름에다 왜 법입니까? 아니 골 비었습니까, 빌게? 내 이거 주제넘은 소리 같지만요, 주제넘은 소리가 아닙니다. 자기 자성을 그렇게 전부 갖춰 가지고 있고 알고 있고 원력자, 해결사를 나한테 두고도 왜 딴 이름을 쳐다보면서 침을 겔겔 흘리고 거기서 얻어먹으려고 그러냐 이겁니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남 낳을 때 낳고 남 생길 때 생겼고 다 그런데 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반려견을 안락사 시키고 싶어요

질문 제가 키우던 개 한 마리가 병에 걸려서 너무 오랫동안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도 가망이 없다고 하니까 저는 너무 안쓰러워서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갈 수 있도록 안락사를 시키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죄가 되겠지요?

답변 이 마음이라는 건 체가 없어서 들어가도 들어가는 사이 없고 나와도 나온 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 삼천대천세계의 근본도 바로 내 한마음의 근본이다 이러는 겁니다. 천지 만물의 근본이 인간 한 생각, 마음 한 점에 있다는 겁니다, 근본이. 저 태양이 저렇게 밝고 저렇게 좋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태양보다는 못할 거 아닙니까? 왜? 그게 내 마음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태양의 근본이 내 근본이에요. 태양이 저렇게 비춰 주지마는 우리의 마음의 그 근본은 어디고, 땅속이고 어디고 비치지 않는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비로운 도리를 안다면 한 번 철퇴로 쳐서 무명을 벗겨 줄 수도 있는 법이 있고…. 옛날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런 예가 간혹 있습니다. 원주에서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원주에 그 뭡니까?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뼈가 없는 애를 그거를 죽여 달라고 왔습니다. 그랬는데 죽이는 거는 아무나 죽이느냐고, 왜 죽이려면 당신이 죽이지 날더러 그러느냐고 했더니 "내가 죽이면 떼 가지 않습니까?" 이겁니다. "그러면 나는 떼 가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스님은 손도 안 대고 그렇게 안락사로써 그렇게 해 줄 수 있지 않으냐 이겁니다. 그때가 열 몇 살인데 키가 이만한 게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그 자리에서 똥 싸고 그 자리에서 먹여 줘야 하고 하니 그것이 자기 부모 살아 있을 때는 그렇지만 부모가 돌아가시면 어떡할 겁니까, 그거. 그러니까 자기 죽기 전에 그렇게 해 달라 이거죠. 그런 예도 봤습니다.

그랬듯이 우리가 그런 것을 그렇게 한다면 어떠한 이익이 있을까요? 몸을 벗겨 줘서 다시 똑바른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출현하게 만들고 또 그걸로 인해서 그 죄를 짓고 업을 짓고, 살아가면서 식구들이 다 웃음이 없는 그런 냉랭한 집안을 웃게 할 수 있다면, 웃고 즐기고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면 그것이 자비 아닐까요? 그런 일들도 종종 있었습니다마는 내가 그것을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랬죠? 이 사람들이 진짜 사람이 어떤 거냐고. 물감이 15개라고, 이 세상에 물감이라는 종류는 다 갖다 놓고 어떤 게 진짜냐고 그러면 진짜라고 내세울 게 없는 게 부처라고요. 그러니 이 물감도 물감이고 이 물감도 물감이니 때에 따라서는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한데 어떻게 나만이 물감이니까 내가 제일 아주 진짜 물감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물을 들여 주노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모든 게 부처님, 여러 그 마음들이 한데 한마음이 되는 그 자체가 부처님이죠. 그래서 자기를 내세울 게 없고 자기에게, 즉 말하자면 자기가 잘했다고 할 것도 없고, 또 잘해서 나왔다고 할 것도 없고, 앞으로 잘할 거라는 것도 할 게 없고, 남을 또 원망할 것도 없고, 자기를 탓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 거기 같이 공했기 때문입니다.

나지만 내가 아니고 내가 아니지만 나예요, 모두가. 여기 앉아 있는 사람, 죄 각각이고 모습은 다르지만 어디 다르겠습니까? 그 뜻을 아셔야 합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니까 그럴 테지.' 그냥 이렇게만 넘기면 이 도리는 모릅니다. 내가 한 나뭇덩이라면, 하여튼 뿌리 없는 나뭇덩이라면 그 나무에서 나올 수 없는 나무 덩어리에서 피가 흐를 수 있게끔 돼야 됩니다. 내가 돌이라면 그 돌에서 피가 나오리만큼 진실해야 하고 그렇단 말입니다.

살림에다 비유한다면 살림하는 데 때에 따라서는 애가 막 나가서 잘못되는 이치가 있을 때에 붙잡아다 때리기도 하죠. 그거는 사랑이 아닐까요? 잘되게 하느라고. 또 집안의 물건을 사다 놨는데 그것이 전부 망가졌을 때 이것저것 다 부숴 버리고선 다른 걸로 대치하는 것도, 그럼 그거 헐었다고, 부숴 버렸다고 해서 그게 살생일까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버리는 것도 법 갖다 놓는 것도 법, 죽이는 것도 법 살리는 것도 법, 청소하는 것도 법 청소 안 하는 것도 법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다양하게 이게 청소할 게 있으면 그냥 무심으로서 그냥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가서 청소를 안 하고 있었다면 그냥 아무 소리 없이 가서 청소할 거예요. 누가 하라, 마라 하고 그 법도가 있는 게 아니니까. 따로 법도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더러우면 치우고 치워 놨으면 안 치우고, 깨끗하면 안 치우고. 그래서 내가 그러는 거예요. 똥 마려우면 똥 누고,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잠자고 이렇게 편안한 것을….

여러분들이 때에 따라서 모르는 분들은 아유, 지금 당장 밥거리도 없고, 당장 이것을 이렇게 해야 할 텐데 장사도 안되고 집도 안 팔리고 이런다고 합니다. "당장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빚을 지고 자꾸 빚을 지고 가고 그러니 어떡하면 좋습니까?" 할 때 날더러 어떡하라는 겁니까? 그것이 그렇다고 해서 당분간 고것만 생각하지 말고 이파리 상해 들어가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뿌리를 붙들고 매달려라 이겁니다. 그러면 얼마 안 가서 싱싱하게 이파리가 시들었던 것이 생생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 이파리를 붙들고 앨 쓰고 야단을 하지 말고 뿌리를 붙들어라. 뿌리를 붙들면 이파리는 저절로 싱싱하게 되돌아간다 이겁니다.

> 그 이파리를 붙들고 앨 쓰고 야단을 하지 말고 뿌리를 붙들어라.
> 뿌리를 붙들면
> 이파리는 저절로 싱싱하게 되돌아간다.

공부가 잘 되지 않아 답답해요

질문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고 싶은데 생각대로 잘 되지 않아 답답하기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는지요.

답변 예전에 부설 거사가 도반 셋이 공부를 하러 가다가 자기 아니면 죽겠다고 하는 여자가 있었다고 했죠? 그런데 그 앞의 거를 죽이고야 어찌 뒤에 가서 내가 성불을 할 수 있겠느냐 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생활 속에서 하나하나가 닥치는 게 그대로 그대로거든요. 답답하다 그러는 것도, 우리가 자기가 불을 꺼 놓고 답답한 거지 불을 켠다면 답답하지 않죠. 그래서 불 켜는 것은 거기에 믿고 맡길 때에 바로 불이 켜진 거와 같다 이겁니다. '답답한 것도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 답답하지 않게 하는 것도 거기다.' 하고 놓으면 답답하지 않아요.

우리가 캄캄한 방에 불을 꺼 놓고선 꺼진 거를 그대로 '캄캄하다. 그냥 캄캄한 게 다 어떻게 그냥 가 버렸으면 좋겠다.' 하고 애원을 하지만 자기가 캄캄한 거를 본 장본인이니까 자기가 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방이 환하게 모두 보이고 다 밝게 살 수 있잖아요. 그 방에 있던 사람들까지도 다 밝게 살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놓는 작업을 '그 답답한 것도 거기서 나온 거다. 그러니까 답답하지 않게 하는 것도 거기다.' 하고 거기 놨을 때 불이 들어오는 거나 같은 것입니다.

"신은 듯, 안 신은 듯 맨발같은 신발"

New 어싱 접지 슈즈

지구와 연결되는 EARTHing(접지) 효과
발볼 넓은 신발, 맨발 같은 신발
KSNS 적용 신발



· 소 재 : 도전특수고무 밑창 적용 캔버스화
· 사이즈 : 225~293mm
· 특 징 : 발바닥으로 땅의 굴곡을 느낄 수 있는 접지기능
일반신발 대비 1/10 수준의 3mm 밑창 두께

특판가 : 65,000원(배송비 포함)
어싱전용 양말 증정 (재고 여부에 따라 무압박 양말 증정)



어싱슈즈 블랙그레이

Hit 수행화

특판가 : 45,000원(배송비 포함)
(사은품 : 무압박 양말 증정)

· 색 상 : 그레이화이트 (밑창 흰색)
그레이블랙 (밑창 검정색)
· 사이즈 : 233~293mm
· 특 징 : 발 볼 부터 뒷굼치까지 제로드롭 형태
밑창 두께 3mm
맨발에 가까운 베어풋 디자인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은 www.mahamall.co.kr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